

Lasomme & Project Sleep Recruiting

Recruitment Notice for New Employees and Internships

Launched in 2015, Lasomme & Project Sleep was founded by members from Bain & Company, a global strategic consulting company, and experts from various fields who have worked at Google. It was the first company in Korea to launch a variety of innovative products such as commercializing hybrid foam mattresses. Since then, it has been recognized for its innovativeness and was selected as the most innovative company in 2017 by the Seoul City. As a result, it is now in cooperation with shared housing / youth housing companies and received public funds from the city of Seoul to launch the "Project Sleep". Currently the company is the fastest growing startup in the lifestyle and sleep solutions segment and has positioned itself as the main brand representing the category in major channels such as Kakao Makers, SSG.COM, 29CM, W Concept, 10x10 and Naver Shopping. In addition, it has also been recognized in major domestic and overseas media such as Seoul government agencies, JTBC, Google Media Team, and JoongAng Daily Newspaper.

Lasomme has been ranked as the No. 1 D2C start-up on Kakao, SSG, and Naver platforms. In addition, we have three café-style stores located in Cheongdam-dong. Furthermore, we have carried out numerous pop-up stores in major department stores such as Hyundai, Shinsegae, Lotte department stores. We are constantly making various attempts to provide an omnichannel customer experience. Lastly, Project Sleep has provided mattresses and residential spaces in hundreds of shared residences in downtown Seoul.

Lasomme & Project Sleep is a fast-growing start-up with transparent and autonomous team. At the same time, it is an excellent organization consist of team members who works hard and creates outstanding performance. In addition, it is a young, horizontal organization with vertical work progress. Furthermore, it is a strong organization where each individual is strengthened in line with the company's growth.

We are happy to inform that our team will be having new employees. The opened positions are in the marketing (AMD) position, and sales volume is soaring that we need to recruit people to distribute work and improve efficiency. We would like to have someone who fits our corporate culture as described above, and who is sympathetic to our vision. Based on the absolute evaluation, we would like to have a minimum of 2 and a maximum of 4 employees. (We would like to offer a full-time position after conducting evaluation during the probation period of 3 months)

Required competencies excellence communication skills, zero-defect, fast work handling, teamwork excellence, and a strong interest in e-commerce and the lifestyle industries. In addition, "Good to Have" competencies are foreign language skills, excellent writing skills, persuasive speaking and logical thinking .

We are also seeking interns to support our marketing, planning support and research teams. If you are interested in start-up and marketing, or if you are interested in strategic consulting careers, we are confident that it will be a great opportunity for candidates to learn about logical thinking skills (e.g. MECE). Our previous interns are currently working for consulting companies such as Bain & Company and conglomerates such as SK. The competencies needed are ownership and logical thinking.

스프링 없는 매트리스 간 침대 소음 방해 없으니 꿀잠 속으로



프로젝트슬립의
영원 매트리스
(1인용)과 매트
(1인용) 제품

수면기본권 되찾기 프로젝트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한 조각은 '수면'이다. 하루 3분의 1을 잠자며 보낸다. 수면의 질은 건강한 몸과 삶의 질까지 좌우한다. 누구나 '잠을 잘 잤다'는 걸 권리가 있다. 하지만 많은 학생·직장인의 수면 시간이 짧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이들에게 고가의 침대는 그림의 떡. 잠자리가 불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서울시는 2017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알맹 '수면기본권'을 되찾아주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누구나 잠을 잘 권리를 안겨 주겠다는 취지에서다. 글=홍성교 기자 siriky@joongang.co.kr, 사진=프로젝트슬립 제공



최소 7시간 수면 권장 리포트 발행관리본부가 지난해 발표한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중학생의 주중 평균 수면 시간은 하루 7시간, 고등학생은 5.6시간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5.4시간으로 가장 적었다. 청소년기의 권장 수면 시간보다 2~3시간 적은 셈이다. 게다가 이들은 학습 스트레스 등으로 잠에서 자주 깨거나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밝은 정신으로 활동해야 할 청소년의 수면 건강에 비상등이 켜졌다.

잠을 잘 자려면 수면 시간부터 확보해야 한다. 수면 전문가들은 하루에 적정 수면 시간으로 평균 8시간(7~9시간)을 권장한다. 또 같은 시간을 누워 있더라도 꿀잠을 잘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 잠들기 전이나 잠들었을 때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을 없애야 한다. 소음도 수면

의 질을 떨어뜨린다. 조그만 소리에도 예민한 사람은 침대 매트리스의 스프링 소리에 숙면을 취하지 못할 수 있다. 아랫 매트리스가 없는 매트리스가 권장된다.

수면 전문 브랜드 '프로젝트슬립'

매트리스는 스프링 형태와 비스프링 형태를 구분한다. 국내에선 매트리스 옆에 아홉 90% 이상이 스프링 매트리스다. 선택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스프링 매트리스를 보기 힘들다. 하지만 미국·유럽 등에서는 비스프링 매트리스가 시장의 30~5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슬리퍼로틀리스 같은 해외 매트리스 비교 전문 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매트리스 타일 가운데 비스프링의 일종인 메모리폼은 사용자 만족도가 높다.

서울시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고교생 수면 시간 대부분
서울시 예산 140억원 투입
숙면 이끄는 제품 개발 지원



유니콘에서 활동한 프로젝트슬립 소개 영상

지 진행한 '2017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예산 140억원을 투입했다. 이 프로젝트에 총 13개 혁신기업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수면 제품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라온이 수면기본권 프로젝트를 통해 수면 전문 브랜드 '프로젝트슬립'을 만들었다. 개발 과정에 서울대 재료공학과·산업공학과 출신 연구진이 투입됐다. 지난해 3월 첫 제품 '프로젝트슬립 매트리스'를 출시하며 공식 론칭한 프로젝트슬립은 매트리스 1종(영면), 도파(매트리스 위에 까는 얇은 쿠션) 1종, 베개 3종, 프레임(침대에 빠는) 2종, 방수커버 매트, 잠옷 등 10여 종의 제품을 개발했다. 이 가운데 대표 제품인 '메모리폼 매트리스'는 맛 좋았지만 매트리스가 특징이다. 매트리스의 한 면은 부드러운 소프트폼이고, 다른 한 면은 단단한 하드폼이다. 소비자의 취향·체형에 따라 영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

프로젝트슬립은 론칭 직후 주요 온라인 채널의 메인 브랜드로 부상했다. 지난해 하반기엔 '프로젝트슬립 매트리스'가 네이버 쇼핑상을 매트리스 부문에서 판매 실적 1위를 찍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엔 구글 유튜브가 싱가포르 오피스에서 브랜드 상공 사례로 프로젝트슬립을 촬영했다. 라온이 프로젝트슬립 구매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는 '매달 제품을 자인에게 추천하겠다'고 응답했다. 매트리스를 사용하면 스프링이 없어서 조용하게 숙면을 취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이들 상당수는 머리 통증이 잦았다고(40.4%) 예전보다 숙면을 취했다(36%). 또 자신에게 맞는 정도(단단한 정도)를 파악(77.4%)할 수 있고 빠르게 잠이 든다(36.7%)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인터뷰 프로젝트 이관 이상미 라온 공동대표

"누구나 숙면할 수 있게 가성비 좋은 스프링 없는 매트리스 개발"



서울시의 '2017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에서 수면기본권 되찾기 프로젝트를 이관 이상미(사진) 라온 공동대표는 올해 29세인 신세대다. 그는 프래임 청년들의 수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야심 찬 포부로 기획했다. 그는 UBC미래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글로벌 컨설팅업체에서 외대 연봉을 받으며 4년간 근무하다 퇴사하고 2015년 라온을 창업했다. 서울시와 함께해 청년의 수면 해결사로 나선 이 대표에게서 '프로젝트슬립 매트리스' 개발 뒷이야기를 들었다.

-가성비 매트리스를 추구하는 이유는?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룸메이트가 불면증으로 고생했다. 같은 방에서 룸메이트가 잠을 잘 못 자면 나도 당당히 못 잤다. 침대가 좋아야 한다는 일념하에 당시

하고 자선 캠페로 100만원을 호기하는 매트리스를 30만원가량으로 낮출 받아 구입했다. 그때 '하이브리드 폼'이라는 매트리스를 처음 접했다. 라텍스·메모리폼 등 여러 방식의 매트리스가 결합된 형태다. 딱딱한 스프링 매트리스에서만 잠을 자곤 나로서는 신선했다. 여기에 봄이 너무 폭 걸리는 느낌을 보완해 탄생 있는 토끼를 매트리스 위에 얹어 나만의 매트리스 '메시피'를 만들었다. 미국에서 사용된 매트리스 레시피 대로 국내에서 비슷한 것을 찾아 구색을 맞추려 했지만 매트리스만 수백만원이어서 임무를 못 봤다. 매트리스 브랜드 제품 상당수는 중간 유통 단계가 복잡해 원가가 높지 않아야 가격이 비싸다. 예비부부가 경우 매트리스에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하지 않으면 청년들은 일반적으로 주머니 사정이 좋

지 않다. 그래서 가성비 좋은 매트리스를 개발하기로 결심했다."

-스프링 없는 매트리스를 개발했는데

"과거 회사에 다닐 때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했는데 수면 시간이 짧았다. 화장실 라다이어터 위에서 자곤 했다. 목발을 자곤 라도 '잘' 잘 수 있는 매트리스를 만들고 싶었다. 양질의 수면은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해서다. 수면 전문가를 인터뷰하고 해외 논문 수백 개를 탐독했다. 스프링 매트리스의 경우 몸을 지탱하는 스프링과 스프링 사이에 간격이 생긴다. 신체 부위 중 압력을 많이 받는 지점압력점이 생긴다. 이 압력점은 신체 특정 부위가 제라거나 통증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반면 스프링이 없는 메모리폼 매트리스는 마치 수백만 개의 작은 스프링이 있는 것처럼 신체 부위

가 곳곳에 힘을 나눠 받는다. 두드러지는 압력점이 체중에 고르게 분산돼 숙면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스프링 없는 매트리스를 개발했다"

-패션 모델 출신인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학교 모델, 여러 브랜드와 디자이너의 인연이 모였을 일였다. 자연스레 패션·인테리어에 관심을 가졌다. 브랜드를 운영할 때 패션 감각의 책재가 반영된다. 매트리스 제품 위주로 촬영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패션 화보를 찍듯 색채를 촬영에 표현해드려 노력했다. 매트리스 하나만으로도 실내 인테리어를 살리도록 신경 썼다. 일반적으로 매트리스 제품 사진엔 제품만 찍는 것이 많다. 프로젝트슬립은 사진에 사용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담겼다"

홍성교 기자

Working Condition

- Number of Recruitment: 2 ~ 4 people
- Deadline: 5/19 (Sun) until 23:59 pm (First come, first-served)
- Location: 507 Teheranro, Gangnam-gu (3-minute walk from Samsung station)
- Payments are in accordance with the bylaws and comply with all Labor Standards Act.
- Working period: 3 months, the other period to be discussed
- Start time is negotiable

Job Description, Full-time employee

- Sales channel management: channel planning exhibition consultation / progress / planning and customer management
- Marketing: Contents production and support, performance marketing, viral marketing planning and progress
- Sales data recording and management, Customer Service online / Mobile / call management support
- Securing market intelligence related to product planning

Job Description, Interns

- Online and offline channel management and sales support (e.g. “how to increase our sales?”)
- Analyze overseas markets and identify the latest trends
- Product related research, data analysis, customer survey, etc.
- Admin operation support

How to Apply

- Email your resume to admin@lasomme.com
- Please include (a) the title of the position you are applying (e.g. Full-time position or Internship position) and (b) available starting date in your resume
- There would be 2 rounds of interview and every process will be first come, first served based.

www.lasomme.com / www.projectsleep.co.kr